

# 음악으로 물들이는 기억의 정원

문화공간 이름, '치매가족을 위한 힐링 콘서트' 성황리 개최... 음악으로 위로·희망 전해

문화공간 이름(이사장 이운정)이 마련한 제2회 '치매가족을 위한 힐링 콘서트'가 깊어가는 가을밤, 전주의 하늘을 아름다운 선율로 수놓으며 관객들의 기슴에 오래 남을 감동을 전했다.

이번 공연은 '음악으로 물들이는 기억의 정원'을 주제로, 음악애호가, 치매 환자와 가족을 비롯한 80여 명의 관객이 함께했다.

이날 공연은 전석 무료로 진행되어 더 큰 울림을 주는 음악회가 되었다.

무대에는 성악가 석근수, 송난영, 심용석, 풀루트리스 정현진, 헬리스트 김인하, 피아니스트 박찬근 등 호화로운 출연진이 올라 깊은 울림을 선사했다.

무대는 신경과 전문의 김지성(전주병원)의 치매 강의로 문을 열었다. 객석에 모인 이들은 치매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진 뒤, 음악으로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무대에 몰입했다.

정현진의 풀루트 연주 Tafanel의 'Grande Fantaisie sur Mignon', 김인하의 헬로 독주 '사클리의 눈물', 그리고 두 연주의 협연 'Song from Secret Garden'은 가을밤의 서정을 더욱 짙게 물들였다. 이어 성악가들의 무대는 '가고파', 'Musetta's Waltz', 'Non ti sorder di me', '가장 아름다운 노래', '세티령' 등 다채로운 레퍼토리로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특히 마지막 앵콜곡 '아름다운 나라'는 출연진과 관객이 함께 어우러져 노래하며, 음악이 가진 치유의 힘을 온몸으로 느끼는 장관을 연출했다.



문화공간 이름이 마련한 제2회 '치매가족을 위한 힐링 콘서트'가 깊어가는 가을밤, 전주의 하늘을 아름다운 선율로 수놓으며 관객들의 기슴에 오래 남을 감동을 전했다.

출했다. 관객들은 손을 맞잡고 눈시울을 붉히며, 깊지만 깊은 위로와 치유의 시간을 함께했다.

이날 공연에는 전주치매안심센터 환자와 가족들도 여려명 자리해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허무는 특별한 감동을 나눴다. 단순한 음악회가 아닌, 삶의 고단함을 달래고 희망을 심어주는 '기억의 정원'이 된 것이다.

문화공간 이름을 이끄는 이운정 이사장은 해외 유학과 피아니스트로, 자신의 열정 하나로 전주 효자동에 아름한 음악당을 세웠다. 그녀

는 번 돈을 아낌없이 음악에 투자하며 전북 도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 향기를 전파하는, 음악계의 '북극성' 같은 존재다.

이운정 이사장은 "치매 환자와 가족들에게 음악으로 따뜻한 위로를 드릴 수 있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이름을 통해 더 많은 이들과 음악이라는 장르로 삶의 희망을 나누고 싶다"고 전했다.

가을밤, 전주의 작은 음악당에서 울려 퍼진 선율은 관객들에게 오래도록 잊지 못할 위안과 희망의 불빛으로 남았다. /이만호 기자

## 전주문화재단, 추석맞이 '한지골 한가위 한마당' 개최

(재)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락기)이 추석을 맞아 오는 10월 2일부터 5일까지 나흘간 전주천년한지관에서 '한지골 한가위 한마당'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통 명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한지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과 놀이를 통해 시민과 관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한지골 한가위 한마당'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체험형 프로그램과 상시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참가비는 무료다.

참가자들은 한지를 직접 만들고 활용하는 과정을 통해 전통문화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배우고 경험할 수 있다.

주요 프로그램은 △전통한지 제조체험 △내가 만든 한지공예 △천년한지 소원빌기 △랜덤 선물 뽑기뽑기 △진동놀이 체험 등이 마련된다. 이 중 '전통한지 제조체험'과 '내가 만든 한지공예'는 사전 예약이 필요한 프로그램(초등학생 이상 참여 가능)이며, 상시 프로그램은 현장에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전주천년한지관 누리집(jnhm.kr)에서 가능하다. /김재훈 기자

## 정읍시립박물관, 지역 서화가 소공 이명우 조명 특별 전시

정읍시립박물관이 23일부터 12월 7일까지 지역 서화가 소공 이명우 선생을 조명하는 전시 '부언의 가르침, 달마'를 연다.

소공 이명우 선생은 1923년 김곡면 회봉리 김뫼마을에서 태어나 불화의 대가 김일섭 스님에게 사사받았다. 이후 1979년 일본 오사카 달마화 전시를 시작으로 대만역사박물관, 주일 한국문화원 개원 초대전, 신의회 선생 유물전

등 국내·외를 오가며 활발한 전시 활동을 이어왔다.

그의 달마도는 위엄보다 온화함, 두려움보다 자비로움을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거칠없는 붓놀림 속에서도 따스한 눈빛과 굳건하면서도 인자한 표정은 오늘날에도 깊은 울림을 준다.

이번 전시는 후손이 보관해 온 작품과 그림 도구 등 총 33점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정읍

출신 서화가의 삶과 예술세계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읍시립박물관은 휴관일인 월요일을 제외하고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할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무주 '주계고성(약 840m, 삼국~조선시대)' 발굴조사 현장 설명회가 지난 22일 2회에 걸쳐 무주읍 대치리 산 52번지 일원에서 진행됐다.

대한 시굴 조사가 진행됐다. 8월 27일부터는 서성벽 내외부에 대한 3차 발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문현에 따르면 '주계고성'은 백제와 신라가 맞닿은 국경 보루이자 지역의 행정사무를 맡아보던 치소성으로 기록된 곳으로, 이번 조사

를 통해 성곽의 구조와 축성 기법, 내부 시설 등이 확인되며 역사적 실체가 드러났다.

또한 유물은 삼국시대 기와편과 토기편이 출토되어 주계고성의 축조 및 운연 시기가 삼국시대였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남성벽에서는 외성벽 축조 방식과 보축 시설이, 서성벽에서는 내·외 성벽과 회과도로 추정되는 공간이 확인됐다.

군은 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 추가 발굴 조사를 이어갈 계획으로, 아직 확인되지 않은 문현과 성곽 주요시설에 대한 규명, 성곽 축조 주체를 밝힐 수 있는 기초자료 확보에 큰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풍요로운 추석**

천혜자연 장수군의 맑은 물로 가꾼

**장수군 농특산물과 함께!**

포털 사이트에서 '장수물'을 검색하세요!

NAVER | 장수물 MALL JANGSU MALL

## 전주 서학동사진미술관 '이홍규 개인전'

기획초대전 '고요의 순간들' 28일까지 개최

전주 서학동예술마을의 서학동사진미술관이 오는 23~28일 기획초대전 '고요의 순간들' 展을 연다.

이번 전시는 겨울의 전복을 거닐며 바라본 자연 풍경, 혼자만의 사색과 고요히 흐르는 구름과 달빛, 밤새 내린 흰 눈이 세상의 어둠과 흠흘을 덮어주듯 편안함과 고요를 느끼고 나눌 수 있는 작품 20여 점을 선보일 예정이다.

작가에 따르면 오랜 시간 나의 감성이 더해진 풍경을 그려내기 위해 불렀다. 일상을 벗어나 한가로이 풍경을 바라보는 혼자

만의 시간과 여유가 참 좋다. 유유자적 흐르는 구름도 소복이 쌓이는 눈도, 따뜻하게 밤하늘을 비추는 보름달의 모습도 그것들이 가진 감성이 좋다. 그런 모습들은 실제의 장소지만 나만의 감성과 상상이 더해져 이를 담고 평화로운 세계로 보여지곤 한다.

자연의 모습을 담백한 먹빛과 색채로 한자에 딱 맞고 잔잔한 아름다움을 끝으로 표현해본다. 수목화의 보편적인 방식을 따르면서도 자유롭고 각각적인 표현과 시선으로 나만의 작품세계를 그려 본다. 정갈하고 담담한 먹빛이 주는 아득한 풍경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내 주위를 돌아보게 하며, 무심히 지나쳤던 세월 속 순간순간의 소중함을 일깨워 준다. /정은성 기자

